

'ACLE 7골 폭격' 광주FC, K리그 연승 이어간다

22일 제주와 31라운드 홈경기...6위 포항에 승점 4점차 줄이기 나서 아사니·가브리엘·베카 앞세운 공격축구로 파이널A 진출 여부 주목

광주FC가 뜨거워진 화력으로 '연승'을 노린다. 광주는 22일 오후 4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제주유나이티드를 상대로 K리그1 31라운드 홈 경기를 갖는다. 지난 13일 포항전 승리로 파이널A 진출 불씨를 살린 광주는 연승을 통해 순위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광주(승점 40)는 앞선 경기에서 6위 포항을 상대로 2-1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4점 차로 7위에 자리하고 있다. 제주는 승점 35로 광주에 이어 8위에 위치하고 있다. 광주는 이번 승리로 제주의 추격을 따돌리고 포항을 압박하겠다는 각오다. '외국인 삼각 편대'를 앞세운 광주는 화력으로 연승을 노리게 된다. 최근 분위기는 좋다. 포항과의 경기에서 최경록이 5월 이후 시즌 3호 골을 장식했고, 선제골을 장식했던 가브리엘은 요코하마와의 AFC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엘리트

(ACLE)데뷔전에서도 득점을 추가했다. 특히 요코하마전에서 광주는 무려 7골을 몰아치면서 '이정효표 공격 축구'의 진수를 보여줬다. 외국인 선수들의 발끝이 매서웠다. 이날 아사니가 경기 시작 2분 만에 득점에 성공하는 등 헤트트릭을 장식하면서 '해결사'가 됐다. 가브리엘과 베카도 골퍼레이드에 가세했다. 광주는 이번에도 아사니-가브리엘-베카를 앞세워 제주전 승리를 노린다. 토종 선수들의 움직임도 좋다. 지난 포항전에서 후반 투입돼 경기장 분위기를 바꾼 최경록과 ACLE에서 오랜만에 골맛을 본 이희균 등 광주의 빈틈 없는 공세가 준비됐다. 국가대표팀에 다녀온 정호연도 재출전을 끝내고 나선 요코하마전에서 한 차원 높은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승리를 만들었다. 코리아컵에 이어 ACLE 일정까지 병행하면서 8·9월 강행군이 이어지고 있지만, 숨 가쁜 일정 속 로테이션 멤버들의 성장세도 눈에 띈다.

김경재, 조성권, 이강현, 오후성 등이 실전을 통해 경기력을 끌어올리면서 광주의 전력도 더 탄탄해졌다. 더위 속 땀뻑한 일정이 펼쳐지는 만큼 '수비 집중력'이 제주전 승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개인기가 뛰어난 제주 남태희와 헤이스를 저지하는 게 광주의 숙제다. 측면 수비수 이민기와 김진호가 이들을 잘 봉쇄하면서 공격 기회를 이어줘야 한다. 이견희와 베카는 공격은 물론 수비에서도 압박을 펼치면서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7·8위에서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두 팀의 경기. 광주는 파이널A라는 목표까지 남겨둔 만큼 승리가 더 간절하다. 이정효 감독은 "제주전 승리를 상위라운드 진출 발판으로 삼겠다"며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늦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10월 동안 3경기를 소화하는 광주에는 체력관리도 중요한 과제다. 요코하마를 대파하면서 상승세를 탄 광주가 분위기를 이어 파이널A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ACLE 요코하마전 헤트트릭을 장식한 아사니 등 외국인 공격진을 앞세워 K리그1 31라운드 제주전 승리를 노린다. 사진은 아사니가 지난 17일 요코하마를 상대로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ACLE 수준 떨어뜨린 광주·울산 '논두렁 그라운드'

일본팀 감독들 열악한 잔디 비판

'논두렁 그라운드'의 민낯은 아시아 무대에선 더욱 초라했다. 아시아 프로축구 최고 권위 대회인 2024-2025 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리트(ACLE)의 첫 경기가 16~18일 대륙 전역에서 열렸다. 챔피언스리그(ACL)가 상위 대회 ACLE와 하위 대회 챔피언스리그2(ACL2)로 나뉘고서 처음 진행되는 시즌이다. AFC는 ACLE를 출범시키면서 홈 앤드 어웨이의 조별리그를 없애고 각 팀이 여덟 상대와 한 번씩 대결하는 리그 스테이지를 도입하는 등 많은 변화를 줬다. 특히 대회 규모를 확 키웠다. 기존 ACL에서 40만 달러였던 우승 상금이 100만 달러(약 133억원)로 두 배 넘게 불어났다. K리그1(5억원)에서 스텝일급 번 우승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다. ACLE 첫 매치데이엔 한국에서는 두 경기가 열렸다. 1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광주FC가 화려한 공격축구로 일본의 강호 요코하마 F.마리노스를 7-3으로 격파하며 아시아 전역에 충격을 안겼다. 18일에는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일본의 가와사키 프론타레가 고품격 압박축구로 홈팀 울산 HD를 1-0으로 물리쳤다. 선수들은 아시아 최고 대회에 걸맞은 열정을 발산했다. 그러나 한국 축구경기장의 그라운드는 이들이 기량을 온전히 펼쳐 보기에는 너무도 열악했다. 특히 문수축구경기장 그라운드는 군데군데 팬 부분이 너무도 많았다. 선수들이 기본적인 패스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의 논두렁 그라운드.

와 드리블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원정을 온 두 일본팀 사령탑들은 열악한 잔디 상태를 입을 모아 지적했다. 존 허친슨 요코하마 감독대행은 "잔디에 문제가 있었다. AFC가 선택한 것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따지기보다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니키 도루 가와사키 감독은 '문수축구경기장의 그라운드가 ACLE 경기를 치를 자격이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어디까지나 내 사건"이라고 전제한 뒤 "모든 선수는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 그라운드, 선수들이 경기를 즐기기에 충분한 수준이었던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오니키 감독은 이어 "선수들이 자신의 개성과 기

량을 다 보여주면 그게 관중에게 전달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어지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9시쯤째 가와사키 유니폼을 입고 활약하는 전 한국 국가대표 정성룡도 한국의 잔디 상태를 아쉬워했다. 가와사키는 울산 팬들 사이에서 '가와사키'로 불린다. 공교롭게도 거의 매년 울산과 ACL에서 맞붙는 터라 정성룡은 문수축구경기장 그라운드 상태에 대해 잘 안다. 정성룡은 "잔디 상태가 안 좋으면 부상 우려가 있는데, 작년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다"며 "관중들도, TV로 경기를 보는 팬들도 잔디가 개선되기를 바랄 것이다. 요즘 K리그에서 좋은 축구가 펼쳐지고 있는데, 잔디가 좋아진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육상 다이아몬드리그 상금 증액...총 123억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가 2025년 상금 총액을 924만달러(약 123억4000만원)로 증액한다. 세계육상연맹은 19일 "다이아몬드리그 총회에서 내년 상금을 역대 최다인 924만달러로 증액하기로 했다"며 "2021~2024년 시즌당 상금 총액을 30% 인상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다이아몬드리그 조직위원회는 "내년 개별 다이아몬드리그 대회 총상금은 50만달러,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상금은 224만달러로 오른다"며 "상금과 출전 수당 등으로 선수들에게 총 1800만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교통, 숙박, 의료 등을 위해서도 수백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이아몬드리그는 개별 대회 1~8위, 파이널 1~8위에 오른 선수에게 상금을 준다. 2021~2024년 개별 대회 1위는 1만 달러, 파이널 챔피언은 3만 달러를 받았다. 남자 높이뛰기 우승者は 지난해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서 우승해 3만달러를 받았고, 올해 로마 다이아몬드리그에서 정상에 올라 1만달러를 챙겼다. 2024년 개별 대회 종목별 상금은 총액 2만5000달러, 파이널 상금은 6만달러였다. /연합뉴스

북한, FIFA U-20 여자 월드컵 결승 진출

미국에 1-0 승...일본과 대결

북한이 '강호' 미국을 꺾고 2024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 결승에 선착하며 통산 세 번째 우승을 향한 9부 능선을 넘었다. 북한 여자 U-20 대표팀은 19일 콜롬비아 칼리의 에스타디오 올림피코 파스쿠알 게레로에서 열린 미국과 대회 준결승에서 1-0으로 승리했다. 독일과 함께 이 대회 역대 최다 우승(3회)에 빛나는 미국은 12년 만의 우승 기회를 놓치고 3-4위 결정전으로 밀렸다. 북한은 전반 22분 선제골을 터트렸고, 주인공은 '골잡이' 최일선이었다.

최일선은 김선옥이 중원에서 찰려준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정면 부근에서 왼발 슈팅으로 미국 골대 오른쪽 구석에 볼을 꽂았다. 북한이 미국의 공세를 막아내고 한 골 차 승리를 지켜내면서 최일선의 득점은 결승골이 됐다. 이번 대회에서 5골을 터트린 최일선은 나탈리아 벤티투(브라질), 히지카타 마야(일본·이상 5골)와 함께 득점 공동 1위로 올라섰다. FIFA U-20 여자 월드컵에서 두 차례 우승(2006·2016년)과 한 차례 준우승(2008년)을 차지한 북한은 준결승에서 네덜란드를 2-0으로 꺾은 일본과 결승전을 치른다. 북한은 23일 열리는 대망의 결승전을 통해 8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대학생 e스포츠 최강자 가린다

빛고을 캠퍼스 e스포츠 대회 25일 조선대 이스포츠경기장

'2024 빛고을 캠퍼스 e스포츠 대회'가 오는 25일 조선대 이스포츠경기장에서 펼쳐진다. 광주·전남 소재 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20일 오후 6시까지 팀 단위로 참가접수를 받는다. 대회 종목은 5대5 캐릭터 기반 전술 슈팅 게임 '발로란트'다. 총상금은 1000만원으로 1등에게는 500만원, 2등 300만원, 3등과 4등에게는 100만원이 주어진다. 또 8강 진출시 유니폼이 별도로 지급된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시가 오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한 달간 17개의 축제·행사·마임을 집적해 개최하는 'G-페스타 광주'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고정희 개인전
: 황혼의 찬란한 여정

일시 : 2024-09-24(화) ~ 2024-10-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9월)

일시 : 2024-09-01(일) ~ 2024-09-29(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9.16(월)-17(화) 오후 5시 한가위 특별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황혼의 찬란한 여정

일시 : 2024-09-24(화) ~ 2024-10-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